

한국 수의학 고전에 대한 연구

천명선 / (주)동아시아언스 연구원

독일에서 만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와 원형료마집(元亨療馬集)

독일 뮌헨대학의 수의과대학에는 고해부학 및 수의학사 연구소(Institut für Palaoanatomie und Geschichte der Tiermedizin)가 있다. 2000년도 10월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무작정 뮌헨을 찾았을 때, 폰텐 드리쉬(Angela von den Driesch) 교수는 1997년도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 한 편을 건네 주었다.

'Pferdeklassiker(직역하면 馬古典)', 헤어테(Michael Heerde) 박사가 저자다. 전형적인 중국 마의학 서적의 형태를 갖춘 한 필사본 원전을 번역하고 수의학적인 평가를 내린 논문이었다. 시대와 내용으로 판단해보건 데 1608년에 중국에서 발간된 '원형료마집(元亨療馬集)'을 요약한 필사본임이 틀림없었고 저자 역시 논문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달아 놓았다. 하지만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Bayerische Staatsbibliothek)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은 'Cod.cor.69'라는 분류번호를 달고 있었다. 'cor'라는 기호는 대개 한국을 의미하기에 지도교수께 필사본 원본을 보여달라고 부탁 드렸다(그림 1).

필사본에는 총 111개의 질병에 대한 소단원을 비롯해 부록으로 약 60개의 처방이 첨가되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필사본의 뒷부분에는 한글로 달아놓은 주석이 있었다. 재미있게도 뒷부분에 실린 60개의 처방은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의 일부분과 그 배열 순서와 내용이 일치했다.

신편집성마의방 역시 '사목안기집(司牧安驥集)'을 비롯해 다른 고전들을 참고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원전이 무엇인지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었지만, 한국사람이 손수 옮겨 쓴 책이었다. 이 책이 어떻게 독일의 도서관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수수께끼이다. 헤어테 박사는 중국에서 2년간 머물면서

중국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원문을 독일어로 완역했다. 서양인들이 고전을 번역할 때 범하기 쉬운 오역

¹ 1930년대 편찬된 만주 영인본을 참조

이나 지나친 단순화가 매우 적은 훌륭한 번역임에는 틀림없으나 한글을 번역할 수 없었던 헤어데 박사는 그냥 '지역 사투리' 정도로 한글주석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이 책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중세 한국에서 만든 책이라는 사실을 연구소의 독일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마의학'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마의학 서적은 1399년 세상에 선을 보인 '신편집성마의방'이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동인경험방(東人經驗方)'이라고 명명한 몇 개의 처방과 목양법(牧養法)을 통해 한민족의 독특한 '수의술'을 짐작해 해주는 하지만, 많은 부분은 중국 고전에서 따온 것이다.

조선 초기에 입수 가능 했던 사목안기집을 비롯한 당시 중국의 수의 고전들을 참고로 했을 것이다. 송(宋)과 명(明)을 지나면서 그 내용이 더욱 방대해진 사목안기집은 조선 시대에도 마의(馬醫)들의 교본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다.

1504년 재간본(續修四庫全書, 1030, 子部, 2000, 上海古籍出版社)을 보면 원형료마집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신편집성마의방 역시 조선시대를 거치며 재간되고 관련 서적(주로 농학서적)에 반복해서 인용된다. 이는 신편집성마의방이 마의술을 펼치던 이들에게 중요한 교과서였음을 상기 시킨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후에 헤어데 박사가 작업한 필사본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원형료마집(1608)'이 아니라 조선 중종 때 이 서(李曙, 1580~1637)가 편찬한 '마경언해(1635)'의 '한문 부분'만을 옮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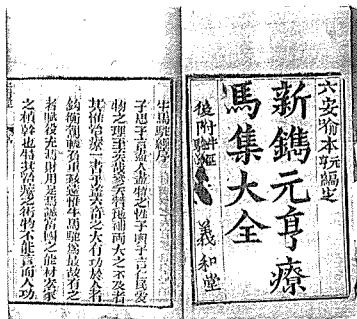


그림 2. 청(淸)대에 발간된 원형료마집(元亨療馬集, 1736)



그림 1.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BayerischeStaatsbibliothek)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Cod.cor.69'

원형료마집은 중국 명나라 시절 육안주(六安州)의 유명한 수의사였던 유본형(俞本亨)과 유본원(俞本元) 형제가 집대성한 마의학 고전이다. 중국에서 편찬된 다른 의서나 수의학 서적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창작했다기 보다는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수의학 서적들을 모아서 재편성 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 이미 중국에는 9세기 당나라 때 이 석(李石)이 펴낸 '사목안기집(司牧安驥集)'을 비롯해서 번목찬험방(蕃牧纂驗方, 12세기)이나 전기통현론(13세기) 등의 마의학 전집이 출간된 바 있다. 원형료마집도 이들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새로 창작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명과 청대를 거쳐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출간된다.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다른 편집판이 존재할 정도다. 20세기에도 새롭게 발행되었으니 근 400 여 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전통 수의학의 보고라고 하겠다. 그러나 조선시대 당시에도 이 책은 중국뿐 아니라 근방의 한자문화권 국가에는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군사학과 병기학에 조예가 깊었던 이서가 발 빠르게 이 책을 입수했고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중국에서 발간된 지 25년 정도 후에 소개된 셈이다. 우리나라에 '마경대전'으로 소개된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新刻參補針醫馬經大全, 1634)'은 춘하추동(春夏秋冬) 네 권으로 이루어진 명대의 초기 버전으로 추측된다.

중국 농학서적 목록에 따르면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은 1608년에 편찬된 원작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한다. 신동원 박사(한국마의학사, 2005, 한국마사회)가 지적한 대로 마경대전에 실린 최명길의 발문은 '마의방(신편집성마의방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이 너무 간략하게 편집되어 있다며 '마경대전'을 추천한다. 마경대전의 심도 깊은 내용에 더 후한 점수를 준 셈이지만, 전에도 언급했듯 '신편집성마의방'이 200년이 나 먼저 편찬되었다는 것과 그 자체가 '요약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용의 우의를 단순하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는 이 '원형로마집'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의 '한자 옆에 한글로 음을 달고 각 문장마다 한글 풀이'를 덧붙였는데 지금 읽어보아도 이해가 쉽도록 그 번역 역시 잘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신편집성마의방 등 수의고전을 해석할 때 거꾸로 마경언해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마경언해는 보기에도 아름다운 목판본 인쇄물이다. 현재에도 활자본으로 혹은 필사본으로 그나마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수의학 고전이기도 하다. 중세 한글을 연구하는 국문학자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수의사들에게는 정작 관심을 끌지 못했다.

수의 고전 연구

안타깝게도 현재 수의고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마사회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는 마사박물관지와 마문화연구총서 시리즈에서 마의학에 대한 자료들이 몇 건 출판되었을 뿐이다. 전국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마의학서적에 대해서도 집대성을 했는가 하면, '한국마의학사(신동원, 마문화연구총서 8, 2004)', '조선의 마의서(윤병태, 마사박물관지, 1999)'를 통해 대략의 수의학 고전에

표 1. 마경(초집)언해에 대한 국문학적 연구

제목	저자	연도	출처
馬經抄集諺解의 어휘 연구	이유기	2004	한국어문학연구, 제43집, 105~134
馬經抄集諺解 研究	최영순	1995	효성여대 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馬經抄集諺解'의 어휘 연구	송창선	1995	경산어문학회지, 1, 35~58
〈마경초집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 음운과 형태를 중심으로	김순자	1984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해서도 정리가 되었다. 수의학 역사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연구인력 중에 정작 '수의학 전공자'는 없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도 드물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런 상황이니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수의학 고전에 대해 조사 자료가 없다고 불평할 처지는 못 된다. 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대한수의사회 수의역사특별위원회의 자료들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논문을 마치고 뮌헨의대 의학사 교실을 통해서 한 마의학 필사본 고전 한 점을 받았다. 미국인 중국어학자와 수의사 한 사람이 이 필사본을 입수 했는데, 이것이 원형료마집을 앞서서, 원형료마집 보다도 훨씬 오래된 마의학 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기에조차 조악한 이 필사본은 그 시기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원형료마집, 더 자세히 말하면 청(淸)대에 출간된 원형료마집의 한 부분을 요약해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청대에 상업적으로 출판된 원형료마집들은 치료부분을 제외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많이 생략했다.) 이 필사본은 질병에 대한 짧은 설명과 증상을 감별진단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충 그린 말의 질병도도 과연 수의사가 읊겼을까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간단한 코멘트와 다른 판본들과의 비교를 넣어 소논문을 하나 만들었다. 역시 유감스럽게도 이 논문을 학회지

표 2. 대한수의사회지에 실린 수의학사 관련

호	연도	제목/저자/페이지
제36권2호	2000년2월	수의역사 연구에 관한 현황과 전망 김병성 147
제36권3호	2000년3월	한국 수의발달사 이시영 208
제36권4호	2000년4월	한국 수의 발달사2 이시영 335
제36권6호	2000년6월	한국수의발달사(3) 이시영 535
제36권9호	2000년9월	한국수의발달사(4) 이시영 794
제36권11호	2000년11월	조선전기의 수의서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에 관한 연구1 김영진, 김병성 1005
제36권12호	2000년12월	조선전기의 수의서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에 관한 연구2 김영진, 김병성 1081
제36권12호	2000년12월	한국수의발달사(5) 이시영 1091
제37권1호	2001년1월	한국수의발달사(6) 이시영 59
제37권3호	2001년3월	한국수의발달사(7) 이시영 264
제37권10호	2001년10월	조선시대의 수의서적들(4-1) 이시영 899
제37권11호	2001년11월	한국수의발달사(8)-조선시대의 수의서적들(4-2) 이시영 980
제37권9호	2001년9월	우리나라의 근대 수의역사서 현황에 관하여 김병성 808
제38권1호	2002년1월	대한제국 전후기의 수의발달사 이시영 36
제38권2호	2002년2월	대한제국 전반기의 수의발달사2 이시영 139
제38권3호	2002년3월	한국의 개화기의 수의행정과 신제수의사의 양성1 김병성 230
제38권4호	2002년4월	한국의 개화기의 수의행정과 신제수의사의 양성2 김병성 318
제38권5호	2002년5월	한국수의학 발달사 일본식민지시대의 수의학과 수의제도1 이시영 418
제38권6호	2002년6월	한국수의학 발달사 일본식민지시대의 수의학과 수의제도2 이시영 500

에 실을 수는 없었다. 필사본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소유물에 대해 스스로의 견해와 다른 논문이 나오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많이 섭렵했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륙을 건너서 필사본 하나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은 수의학사를 연구하는 이에게 어찌 보면 아주 즐거운 일이다.

현재 한국에는 수의학사관련 학회나 학회지는 없다.

물론 수의학사를 연구하는 소모임도 전무하다. 수의학사를 정규과목에서 강의하는 수의과대학은 충북대와 제주대 둘 뿐이다.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수의학사회에서 거의 한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는다는-혹자는 이들이 학회에 참가하여 사진만 찍고 간다고 비꼬기도 한다-일본도 30년 가까이 '일본수의사학잡지(日本獸醫史學雜誌)'를 편찬하며 나름대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슬슬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

캐나다 퀸스대학교에서 의학사를 강의하고 있는 더핀 교수는 '의학의 역사'(사이언스 북스, 2006)에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의학사 교육의 목표를 밝혀 두었다. 첫째는 역사학과 인문학을 현재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 연구 학문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의과 대학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정설(定說)'들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자세를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교육적인 의미로서만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더핀 교수가 책머리에 적어놓은 글을 인용한다. 인터넷에서 떠돌던 글이라고 한다.

“의사선생님, 귀가 아픈데요.”

기원전 2000년 자, 이 약초 뿌리를 드시오.
 기원전 1000년 그 뿌리는 먹으면 부정을 타니 이 주문을 외우시오.
 1850년 주문은 미신이고, 이 물약을 드시오.
 1930년 그 물약은 돌팔이 약이고, 이 알약을 드시오.
 1970년 그 알약은 효과가 없소. 이 항생제를 드시오.
 2000년 그 항생제는 인공 합성물이고, 자, 이 약초뿌리를 드시오.

우리의 현대적인 지식이 절대적이며 항상 진보하는 것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수의학 고전을 연구하는 것이 수의학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 Essay on Veterinary History를 잠시 읽습니다. 많은 충고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의학사 홈페이지 www.vet-history.net, 필자 이메일 jd.chun@gmail.com)